

## 그리스도인 14.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

Christian 14. Christians are saved from sin.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

1. 첫째, 죄의 형벌(the penalty of sin)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며 죄인은 죄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죄들의 용서(혹은 죄사함)를 받는다고 한다.

로마서 1장 18절에 따르면,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못 본 척 하시지 않는다. 또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않는다. 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해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욥 9:12)라며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가 없다. 구원이란 이렇게 죄 때문에 당하게 될 심판, 죄의 형벌에서 건져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둘째, 죄의 세력(the power of sin)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을 죄로부터 해방이라 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18절은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요 8:34).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살이를 끝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능력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구원은 죄사함만을 말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지 지옥만 피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도 피하게 되었다.

3. 셋째, 죄의 존재(the presence of sin)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죄의 존재로부터 건져지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한다.

로마서 8장 23절은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한다. 조만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까지 죽어있던 그리스도인의 몸은 부활을 통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그 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그때 구원받은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몸은 아담과 같은 몸으로 죄에 익숙하지만 그때 얻게 될 몸은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 몸은 죄가 전혀 없고 죄의 존재와 상관이 없는 몸이다. 바울은 그때 입게 될 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 3:21)

구원은 이렇듯,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지배받는 생활에서도 벗어나며 죄의 몸도 벗어버리는 것이 된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죄사함,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죄로부터의 해방,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원은 **죄사함(죄들의 용서)**이 시작이다. 그러나 죄사함이 이뤄지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도 시작된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죄사함은 그리스도인에게 **과거의 일**이며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의 일**이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의 일**이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말하는 구원은 죄들의 용서(죄사함)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몸의 구속**을 가리킨다.

**죄사함**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누린다. 복음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을 때** 누린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누린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믿을 때** 누린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을 때 누린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을 때 누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내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 산다고 믿을 때 누린다. 이것은 죄사함 받는 순간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게 되는 것이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누린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보호받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렇듯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죄들의 형벌에서 건져지는 것은 **칭의(justification)**,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은 **성화(sanctification)**,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영화(glor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로마서에서 언급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sup>30</sup> 더욱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부르시고, 또 자신이 부르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의롭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 그들을 또한 그분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칭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성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를 말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죄사함만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분명히 죄사함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시작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영화롭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누구든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가 구원받은 증거로 성화의 삶이 나타날 것이며 또 영화롭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the penalty of sin	the power of sin	the presence of sin
구원의 모습	죄들의 용서	죄로부터 해방	몸의 구속
죄와의 관계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성화의 입장에서	즉각적	점진적	궁극적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믿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보호
신학적으로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	영화(glorification)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